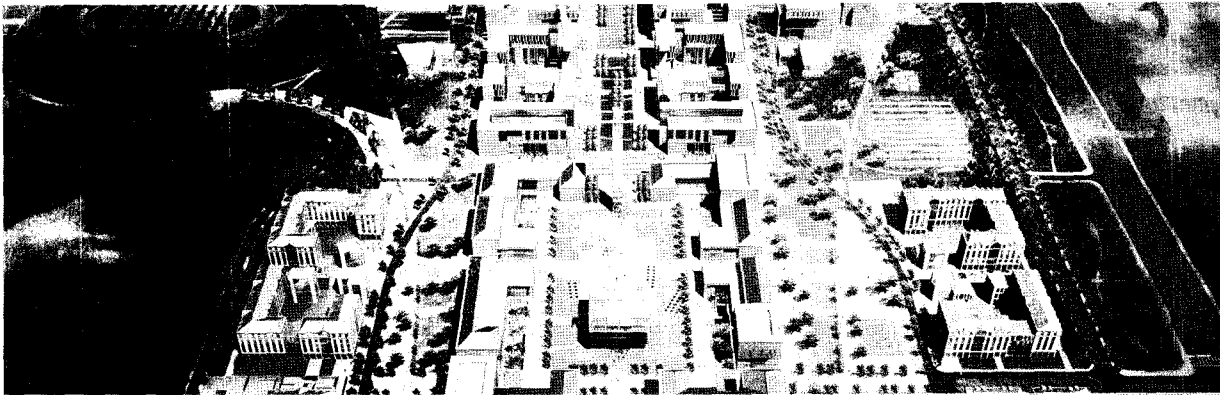


변화하는
우리대학

연세대학교*



YONSEI

The First & The Best





YONSEI

The First & The Best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를 열다

2006년 1월 26일, 연세대학교는 인천광역시와 <연세대학교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2008년에 인천광역시와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얻어 2008년 11월 26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Incheon Free Economic Zone)의 동남쪽 자리에 첫 파일을 박았다. 그리고 약 18만m²(5만 5천 평)의 1단계 공사가 완료되어 2010년 3월에 국내외 인사들이 축하하는 가운데 개교식을 열었다.

지난여름부터는 국제캠퍼스의 주요 기능인 글로벌 학습의 일환으로 계절학기 특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올해 3월에는 글로벌 융합공학부(공과대학), 약학대학, 의예과(의과대학), 치의예과(치과대학), 자유전공(학부대학), 언더우드국제대학, 그리고 외국인글로벌학부(학부대학)의 신입생 약 420명 전원을 기숙사에 묵게 하여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을 상호보완적으로 실시하는 전인적인 교육(holistic education)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새천년 연세대학교에 먹구름이 끼고

서울 최고의 위치를 자랑하는 연세대학교가 40킬로미터도 넘는 거리에 있는 캠퍼스를 계획하고 또 이를 별도 캠퍼스가 아닌 확장캠퍼스(즉 신촌과 하나인 캠퍼스)로 추진했을 때는 보통의 각오로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캠퍼스 일부를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전한 후, 이전한 학사단위 입학생들의 평균 수능점수가 급격히 낮아진 타 대학의 사례를 익히 알고 있었으니.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지만 처음 국제캠퍼스를 추진하기 시작한 2005~2006년에는 연세대학교의 전망에 먹구름이 끼어 있었다. 그 요인들을 짧게 요약하면:

1. 신촌유홍문화의 확산

연세대학교는 당시 '가장 즐겁게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대학 1위, 반면 학업강도가 높은 대학으로는 5위'라는 애매한 명예를 쌓고 있었다. 신촌문화는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연세대학교를 선호하게 되는 데에 기여하지만 재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없

게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연세대학교가 공부에 열중하는 대학이 아니라는(가령 ‘신촌 낱알이’의 이미지는 70년대부터 우리를 따라다녔다) 부정적 이미지 형성에 한 몫 했다.

2. 국제화 이미지 퇴색

외국인이 세운, 그리고 외국인과 가장 활발하게 교류하는 대학으로서의 연세대학교의 이미지는 새천년에 들어서면서 국제화의 박차를 타 대학에 비해 뒤늦게 가하게 되면서 퇴색하기 시작했다. 이후 연세대학교는 언더우드국제대학, 여름국제학기프로그램 등으로 타 대학의 국제화수준에 접근하기 시작했지만, “Inbound Globalization”을 위한 인프라는 더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솔직한 판단이다. 이는 국내 모든 대학에 공히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3. 기초학문·교양교육의 비중 감소

이는 전국적인 경향으로서 재계의 영향을 점점 더 받고 있는 대학교육의 현실을 반영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당시에는 재계가 요구하는 ‘스펙’이 전공과목(특히 경영이나 상경계열의 전공과목)을 많이 요구하는 것이어서 기초학문·교양교육이 약화일로에 있었다. 다행히 최근 몇 년에는 정부와 재계가 전인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며 ‘융합’, ‘통섭’ 등의 개념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연세대학교 학부대학(University College)과 같은 기초교양센터를 세우고 기초·교양을 강화하는 분위기이다. 작년부터 연세대학교는 1학년부부터 전공을 선택하는 학과제로 환원하여 기초·교양이 다시 약화된 듯하지만, 이에 미리 대비하

여 군 가지를 쳐내고 난 기초·교양과정은 그 내용과 질은 있어서 오히려 강화되었다.

4. 교육 기본시설에 대한 공간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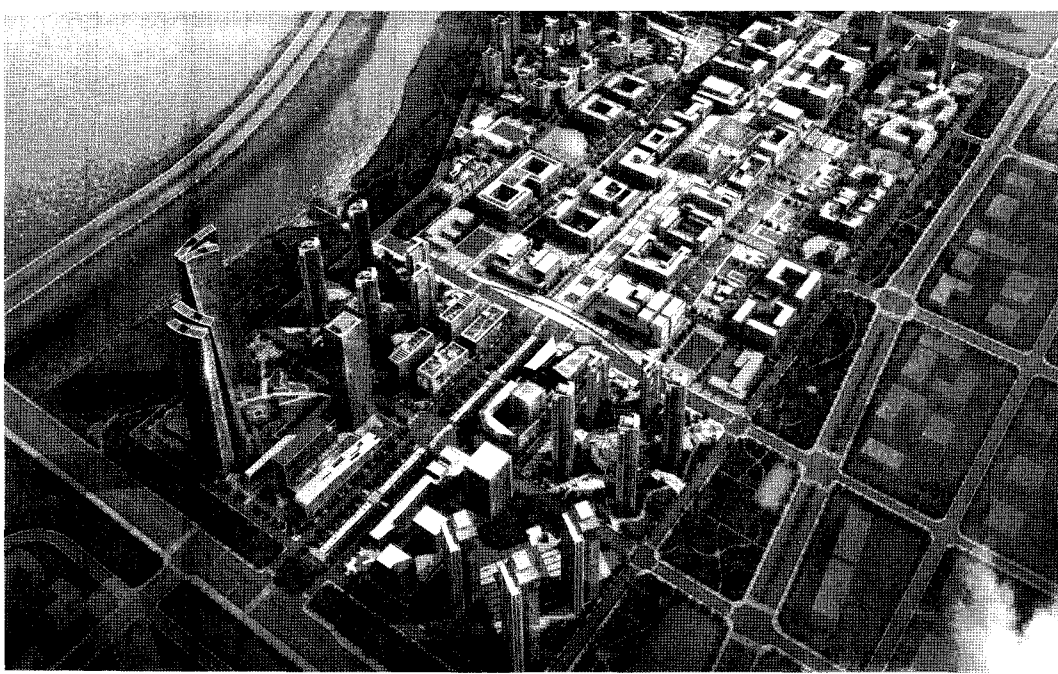
당시 신촌캠퍼스는 교육기본시설 면적이 약 35만㎡(10만 6천 평)로 서울대 43만㎡(13만 평), 고려대(안암) 48만㎡(14만 5천 평)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상태였다. 오늘도 신촌캠퍼스에는 경영대학 건물 신축 때문에 많은 교수연구실, 강의실, 사무실의 이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새 건물이 들어설 때마다 신촌의 그늘은 짙어만 가고 있다.

「21세기 국제캠퍼스의 날씨는 청명하다

이런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연세비전연구위원회는 1) 기초교양교육 강화, 2) 한 단계 높은 국제화 추진, 3) 연구 프론티어의 세 목표들을 세우고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로 송도의 새 부지를 선택했다. 그리고 청사진을 그리면서 위 목표를 그대로 적용하여 1) Global Campus, 2) Joint University, 3) R&D Park의 세 구역을 설정했다.

황량한 땅에 최첨단 강의동과 기숙사 등을 신기루처럼 솟아나게 한 국제캠퍼스 총괄본부의 숨은 노력을 이야기하기에는 지면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것은 창의성의 표본이며 하나의 신화이다. 다만 세계 어느 대학이 부럽지 않은 청사진을 밑그림으로 1단계 공사가 끝난 18만㎡(5만 5천 평)만 보더라도 익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만 남긴다.

1단계 공사인 Global Campus 구역의 일부가 완공되면서 연세대학교의 최대



고민이었던 공간부족 문제는 크게 해소되었다. 아직 Global Campus 일부와 Joint University, R&D Park의 공사가 남아 있지만 7,8년 안에 국제캠퍼스가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조성되지 않은 Joint University 나 R&D Park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국제캠퍼스의 교육에 대해서만 말하겠다.

‘국제캠퍼스교육원’은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된 국제캠퍼스의 전체를 말한다. 국제캠퍼스교육원에 있는 학사단위는 다음과 같다.

1. 약학대학

약학대학은 대학 기초교육을 최소 2년 받은 학생들을 선발하여 4년 동안 연구하는 과정이며 연세대 의대 약리학교실 안영수 학장의 지휘 하에 의과대학, 화학과 등 다양한 분야의 교수들이 약학대학 신설을 위해 모였다. 장차 신약 R&D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 글로벌융합공학부

정부의 전격지원을 받고, 애니콜 신화의 주역인 삼성전자 이기태 전 부회장이 소장을 맡고 있는 미래융합기술연구소의 휘하에서 교육과 연구, 개발의 경계를 흐리는 신 개념

의 학부이다. 현재는 정보전자융합전공만 들어와 있지만 앞으로는 에너지환경과 나노전공도 들어올 것이다.

3. Residential College Education Program

위 학사단위가 연세대학교에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교육내용을 국제캠퍼스에 뿌리 내리게 했다면 국제캠퍼스의 RC 교육은 기존의 교육내용에 새로운 교육이념과 방식을 선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신촌의 확장캠퍼스의 개념을 핵심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기초·교양교육을 담당하는 학부대학과 긴밀한 협조 하에 계획·진행하고 있다.

1) 영어몰입교육

거의 전 과목이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몰입교육으로 강화되었으며 이를 위해 신촌에서 영어우수강의로 인정받은 교수들이 협력하고 있다.

2) Global Leadership

IFEZ와 인천국제공항의 근접성은 많은 외국인과의 교류를 불러온다. 이런 환경과 21세기 지구촌문화에 맞춰 인식의 틀을 넓히고 전 세계를 생각하게 해주는 Global Leadership교육을 명장으로 알려진 국제캠

퍼스교육원 원장 김형철 교수(철학과; 전 연세대학교 리더십센터 소장)가 직접 실시한다.

3) Holistic Education

최근 KAIST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머리와 지식만을 숭상하던 우리의 교육태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캠퍼스의 Holistic Education은 따뜻한 가슴을 가진 인재, 몸과 정신이 공히 건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봉사, 미술, 음악, 사진, 스포츠, 헬스(‘몸짱’) 등을 네 분야로 나눠서 네 분야 모두 듣게 하고 있다.

4) English Reading and Discussion

정규학습은 강의실에서만 이뤄지지 않고 기숙사에서 English Residential Fellow의 지도하에 English Reading and Discussion을 통해서도 이뤄진다. 지정도서를 읽고 정규적으로 모여서 영어로 토론하는 1학점짜리 수업은 국제캠퍼스의 생활과 교육을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캠퍼스 RC는 정규학습 외에 기숙사 residential education을 중심으로 하는 비정규학습과 학생들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필수 요소로 하고 있다.)

5) Residential education

비정규과정의 핵심은 기숙사의 생활이다. 대부분이 처음 경험하는 기숙사 생활에서 소통을 통한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제약조건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문제 풀이(problem solving) 능력, 그리고 부모들의 품을 떠나서 어른으로서의 자세, 특히 의사결정능력 등이 향상이 residential education

의 목적이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연세대학교는 지금보다 많이 성숙한 인재들을 배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Friday Night Movies, Happy Hours, Sunday Brunch 등 먹고 즐기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를 많이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인천시, 해외공관들이 참여하는 Performing Arts Series도 활발히 진행중이다. 이를 돕기 위해 Residential Master와 Residential Head(3명), English Residential Fellow(4명), 학부 3학년부터 박사과정까지 넓게 포진되어 있는 Residential Assistant(20명)가 있다.

6) 지원서비스

영어튜터링서비스(CETS)와 영어강의녹화를 통해, 수업시간에서 잘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최근 영어강의에 대한 한국어 튜터링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적극 검토하는 중이다.

4. 외국인글로벌학부

마지막으로, 정규과정으로 입학한 외국인 중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국제캠퍼스에서 집중적으로 한국어 수업을 받은 후 한국어 능력 인증을 통해 신촌에서 정규강의를 들을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비전, 먹구름을 걷게 하다

마크 주커버그의 페이스북과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아이패드의 성공은 우리에게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켰다. 이

것은 단순히 어떤 공간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연구기관이 들어가느냐 하는 차원이 아니라 껍벌에서 지금 국제캠퍼스와 그 안의 교육·연구 시스템이 이룩될 때까지 연세대학교에서 비전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문제들을 새롭게 보고 어떠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내놓았는지의 차원에서의 소프트웨어를 말함이다.

3월 23일 미래융합연구소 개소식에서 올린공대(Franklin W. Olin College of Engineering)의 리처드 밀러(Richard K. Miller) 총장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혁신에 대한 내용을 인용했다.

새로운 질서를 소개하는 데 앞장서는 것보다 착수하기 더 어렵고, 진행하기 더 위험하며, 성공 가능성이 더 희박한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혁신가는 옛 조건하에 융성했던 사람들을 두고 있으며, 새 조건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로부터는 미온적인 지지를 받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냉대는 법을 자기 편에 두고 있는 적들에 대한 두려움과, 새로운 것을 오래 경험하기 전에는 믿지 않는 불신폭토 때문에 일어난다.

국제캠퍼스의 교육과 생활이 완벽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그렇지 않다'고 고백해야겠다.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이다. 그러나 창의성은 풍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이라는 말이 있듯이 필요한 혁신의 어머니가 된다. 연세대학교는 신 캠퍼스의 지역적인 강점을 살리면서, 그

리고 약 500명의 적지만 매우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를 둘러싼 문제와 제약들을 풀어가면서 꾸준히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그리고 문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 예로 현재 움트고 있는 재미있는 미래 하나를 소개하면서 글을 마칠까 한다.

「RD&E, 연구·교육의 신 패러다임

우리나라 대학들이 국제화의 가치를 세우고 세계 유명 기관들과의 제휴를 추구하고 있을 때 연세대학교의 한 교수는 프랑스 파리대학(Université Paris-Sud)과 조심스럽게 접촉하고 있었다. 그 일은 돈이나 시설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통적인 관심사가 무엇인지 탐색해보고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협력관계를 맺어나가는 내용으로 시작했다.

해외기관들의 무리한 돈 요구에 수많은 협력관계가 무산되는 와중에 이 관계는 점점 강화되었고 결국 부총장급인 Micheal DuBow 교수가 감사하게도 '시간강사'의 급여를 받으면서 이번학기에 국제캠퍼스에서 강의를 하는 대 사건을 낳았다. DuBow 교수는 자신의 나이나 지위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학생, 교육, 연구에만 관심을 쏟는 이상적인 교수이다. 그렇게 계놈연구의 선두에 설 Yonsei/Paris-Sud Project(YPSP)가 출범했다.

R&D Park이 완성될 때까지는 아직도 몇 년이 남아있다. 그러나 YPSP는 단순한 R&D가 아니라 RD&E(Research, Development & Education)의 신 패러다

임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그 이전에 국제캠퍼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프랑스에서 대성공을 거둔 bar science는 주민들이 캠퍼스 근처 '주막'에서 가벼운 한 잔을 하면서 교수의 강의를 듣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대학(?)의 개념인데, 이를 송도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DuBow 교수의 제안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DuBow교수가 제안한 연구·교육 신개념 중 하나는 연구교육'박물관'(Research Teaching "Museum")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수행된다면 이 '박물관'은 인천지역 사람들에게,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YPSP의 연구실 일부를 박물관식으로 개방하여 계몽과 미생물학 연구가 어떻게 수행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직접 실험을 할 수도 있는 시설도 마련되고, 교수들이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강연을 할

수도 있다. 이는 학교와 시민들 사이의 교류를 강화할 뿐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들의 과학 교육을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첨단연구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R&D는 멀고도 험난한 길이다. R&D를 작정하고 투자한 교육기관들이 성공한 사례는 아직 없다고 한다. 이 충격적인 말은 R&D에 가장 앞선 Stanford대학에서 들은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연구가 '개발'까지 가기 전에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개발'을 기대하기 전에 연구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교육적인 이득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 연세대학교의 새로운 변화이다. 이런 차원에서 불과 몇 주 전에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교육원 산하 RD&E센터(센터장 김웅빈, 시스템생물학과)가 설립되었다.

- | | | |
|----------------|-----------------|------------|
| 1 임시관람 | 13 중앙도서관 | 25 종합강의동 3 |
| 2 기숙사 | 14 종합강의동 1 | 26 종합강의동 4 |
| 3 도서관 | 15 종합강의동 2 | 27 방학행정부처 |
| 4 과학기술관 | 16 대학분양/교수세션 | |
| 5 출구장 | 17 기숙사 | |
| 6 인문사회관 | 18 기초자기속사 | |
| 7 종합관 | 19 산목 | |
| 8 농구코트 | 20 자매학교 1 | |
| 9 기념관 | 21 R&D Campus 1 | |
| 10 과학물산동 | 22 R&D Campus2 | |
| 11 자연·지구환경실험주막 | 23 자매학교 2 | |
| 12 주차장입구 | 24 실내 수영장 | |

· 13~27은 2019년 준공예정

